

nexfour.co.kr

인터넷여행사

TourExpress

넥스투어-투어익스프레스 방문자수 막상막하

인터넷여행사 포털 현황

사스여파 5-6월 점유율 하락
휴가철 1-2위업체 고객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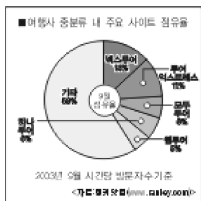
전체 사이트에서 인터넷 여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저점을 지나 상승세를 보이다 사스(SARS)로 인한 위축으로 5월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했다. 여름 휴가철인 7월 최고치를 보인 뒤 시가적 영향으로 다시 8, 9월에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여행사 분야는 **랭키닷컴**의 전세 680여개 중 분류 중 분야 점유율 기준 57번째로 상위권에 속하는 분류이다. 여행사 분야에 속한 사이트는 163개로 사이트 수도 많고 점유율도 높은 분야로 활성화된 분야 중 하나이다.

여행사 중분류 내에서는 넥스투어가 1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투어익스프레스가 11%로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인 모두투어부터는 6%의 점유율로 1, 2위 사이트와 격차가 큰 편이었다.

여행사 분야의 경우 사이트가 많아 상위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특히 3위 이하 사이트간의 점유율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별 방문자 수 등락은 시기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어 사이트별 특징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2년 10월의 경우 투어익스프레스, 넥스투어, 모두투어가 모두 일평균 방문자 수는 3만명 미만의 방문자 수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모두투어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경쟁에서 밀려난 반면 투어익스프레스와 넥스투어의 경우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며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



여행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기에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여행사 역시 전자상거래 초기 시절부터 성장을 지속해왔다. 온라인 여행사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넥스투어와 투어익스프레스를 살펴보자.

◆회사 개요= 넥스투어(www.nexfour.co.kr 대표 홍성환)는 2000년 3월 웹사이트를 오픈·운영해온 인터넷 여행 전문업체다.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는 물론 항공권 판매, 호텔예약, 비자, 여권 서비스 등 모든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일 여행업체가 아니라 인터넷 여행 백화점을 표방해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 호텔 등의 업체가 입점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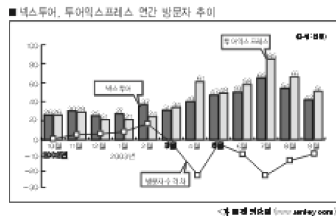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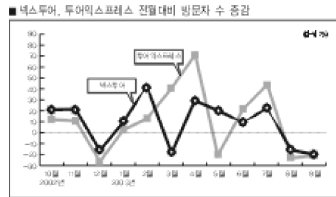
투어익스프레스(www.tourexpress.com 대표 정연상)는 인터넷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투자한 여행 전문업체로, 역시 2000년 3월부터 인터넷 예약판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체 개발한 실시간 항공권 통합 예약시스템 '해모수'를 통해 전세계 60개 항공사와 65개 도시의 항공권을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다.

◆방문자 수 비교= 지난 9월 기준 랭키닷컴 여행사 순위에서 넥스투어 1위, 투어익스프레스 2위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 평균 방문자 수는 투어익스프레스 5만1000명, 넥스투어 4만2000명으로 오히려 투어익스프레스가 9000명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투어

9월 랭키닷컴 순위 1위

해외여행 메뉴도달률 13%



랭키닷컴의 순위는 시간당 방문자 수로 집계하는 방식이라 방문자 수가 적더라도 같은 방문자가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방문객의 활동성이 높을 경우 순위가 더 높게 집계되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다소 적은 넥스투어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트별 방문자 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넥스투어, 투어익스프레스의 일평균 방문자 수는 각각 2만600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에는 각각 4만2000명, 5만1000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방문자 수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4월 급격히 증가했다가 사스(SARS) 여파로 여행 수요가 급감한 5월, 6월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투어익스프레스

하루 평균방문자수 앞서

650곳 항공권 실시간 예약



가 그치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연령은 20대,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넥스투어는 남성 47%, 여성 53%, 투어익스프레스는 남성 52%, 여성 48%로 남성과 여성이 절반씩 차지,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방문객의 연령에서는 넥스투어는 10대 17%, 20대 37%, 30대 27%, 40대 13%, 50대 이상 6%로, 투어익스프레스에 비해 40-50대의 고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투어익스프레스는 10대 12%, 20대 46%, 30대 28%, 40대 11%, 50대 이상 3%순으로, 넥스투어에 비해 10대의 비중이 낮은 반면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이트 이용내역= 각 여행사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해외여행으로 나타났다. 넥스투어, 투어익스프레스 공통적으로 해외여행의 도달률이 가장 높았다.

사이트 방문자 중 메뉴별 이용자를 측정할 도달률(Reach)은 넥스투어의 경우 해외여행 13%, 투어익스프레스의 경우 28%로 역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국내여행은 해외여행 다음으로 도달률이 높아 넥스투어 10%, 투어익스프레스 27%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상품 외에는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등 여행관련 상품 구매의 도달률이 높았으며 여행정보, 게시판 순으로 이어졌다. 사이트에 따라 이용메뉴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 사이트별 특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 고객 비교= 여행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랭키닷컴 망수

투어익스프레스-다음 제휴

넥스투어, 40대 비중 높아

넥스투어와 투어익스프레스는 여행사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업체들이다. 시간당 방문자 수로 측정된 **랭키닷컴** 순위에서는 넥스투어가 여행사 분야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 평균 방문자 수에서는 투어익스프레스가 이미 지난 3월부터 넥스투어를 앞섰고 있다.

인터넷 여행사 분야에서 다른 웹사이트들이 거의 제 자리 걸음을 지키는 반면 넥스투어와 투어익스프레스는 일 평균 방문자 수에서 뚜렷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 평균 방문자 수는 두 사이트 모두 2만6000명에 불과했으나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7월에는 투어익스프레스 5만5000명, 넥스투어 6만5000명으로 2-9배 이상 증가했다.

여행사 웹사이트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포털들과의 제휴 여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투자 회사인 투어익스프레스는 현재 다음에, 넥스투어는 야후코리아와 각각 제휴를 맺고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최대 방문자 수를 보유한 다음에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투어익스프레스가 방문자 수 경쟁에서는 넥스투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여행사 전체 시간당 방문자 수 중 넥스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어익스프레스는 1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 격차가 2%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방문자 수 증가 여부에 따라 1, 2위는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며 현재 방문자 수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는 투어익스프레스의 역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사이트의 주요 메뉴별 도달률에서는 투어익스프레스가 상대적으로 도달률이 높았다. 선호되는 메뉴에서는 해외여행, 국내여행,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순으로 사이트간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사이트 방문객의 경우, 사이트별 이용 행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이트별 방문객에서는 사이트간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넥스투어나 투어익스프레스 모두 공통적으로 20,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넥스투어의 경우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중이 1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